

슈퍼태풍 '볼라벤' 광주·전남 강타

초속 45m 강풍·300mm 폭우 큰 피해 우려... 학교 휴업

초대형급인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면서 서귀포를 지나 28일 오전 광주·전남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강풍을 동반한 볼라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닷길과 하늘길 이 전면 통제되고 광주·전남 유치원·초·중학교에 전면적인 휴업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남해서부전해상과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장흥 등 전남 10개 시군의 태풍주의보를 태풍경보로 격상시키는 등 광주·전남 전 지역에는 태풍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됐다. 광주·전남교육청은 태풍 볼라벤의 북상에 따라 28일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전면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택하도록 했다. 또 목포대학교도 28일 휴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학교시설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28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하반기 교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도 30일로 연기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위험시설 관리 철저 및 현황 점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목포 21개 항로, 여수 16개 항로, 등 전남 50개 항로 80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여객기도 14편이 결항됐다. 지난 6월 개통한 목포대교도 27일 오후 10시부터 약 14시간

가량 전면 통제된다.

볼라벤은 27일 오후 3시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380km 해상에서 시속 31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은 초속 45m(시속 162km)로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기상청은 볼라벤이 28일 새벽 3시 서귀포 서쪽 약 130km 해상에 다다르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전 9시께 목포 등 전남 서해상으로 접근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100~200mm,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50m 이상 부는 곳이 있겠다.

이후 전남 서해상을 관통한 볼라벤은 28일 오후 서울 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뒤 늦은 오후에 북한 웅진반도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7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제주도과 남해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귀포시 안덕면 앞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파도를 버티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 광주, 초고령사회 진입 2040년 전남, 노인인구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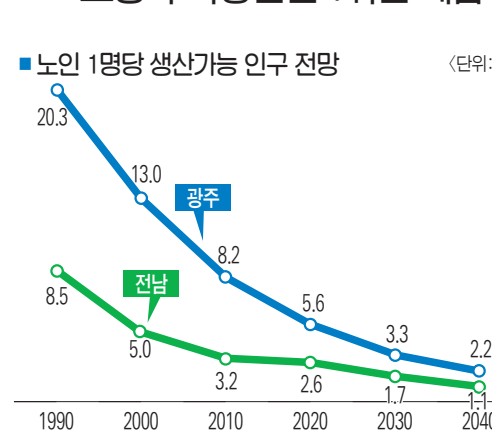
광주가 18년 후인 2030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0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전남도 204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1.1명당 노인 1명을 돌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전남의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32.5명으로 3.3명이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20년 38.8명, 2030년 60.2명으로 급격하게 늘면서 2040년(88.8명)에는 10명

에 9명꼴로 생산가능인구 1.1명당 노인 1명을 돌

봐야 하는 상태가 된다. 지난 2010년 광주의 고령인구 비중은 동구(15.2%), 남구(11.2%), 북구(8.9%) 순으로 높았고, 전남은 고흥(38.2%), 신안(37.1%), 보성(36.5%)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사망원인 1위는 폐암



난 2005년(7.0%)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본격화됐다. 2022년(14.1%)에는 고령 사회로, 2030년(20.1%)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의 노년부양비도 2012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13.2명에서 2020년 17.9명, 2030년 30.6명, 2040년 45.4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201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9%로 지난 2010

년 2005년(7.0%)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본격화됐다. 2022년(14.1%)에는 고령 사회로, 2030년(20.1%)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의 노년부양비도 2012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13.2명에서 2020년 17.9명, 2030년 30.6명, 2040년 45.4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201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9%로 지난 2010

非文 후보들 복귀...민주 경선 하루만에 정상화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파행 하루 만인 27일 정상화됐다. 당 선관위가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제주 경선의 모바일투표 내역을 검토한 결과, 투표 의사에도 불구하고 미투표 처리된 유권자가 당 경선을 중단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비문(비문재인) 후보 측에도 동의한 때 문이다.

당선관위는 이날 후보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의 로그파일 기록을 검토한 결

과, "투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투표에 실패한 유권자 규모가 통계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또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원지역 모바일투표를 재개했으며 다음날 오후 강원지역 순회경선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문 후보들은 모두 경선 복귀 의사를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과 정권교체를 위해 경선에 복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

날 오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어 경선 파행 사태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두관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저희의 울산 경선 불참으로 당에서 공정한 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잘못된 것을 고칠 것으로 본다"며 "국민을 믿고 민주당 경선에 복귀, 완주해 당을 살리고 정권교체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디스 한국신용도 역대최고 등급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디스 기준으로는 지금껏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렸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등급을 'A1'에서 'Aa3'으로 한 단계 높이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Aa3은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지만, 우리나라가 무디스로부터 받은 역대 최고 등급이다.

이번 상향은 무디스가 지난 4월2일 우리나라의 등급전망을 '안정적(Sta-

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높인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2010년 4월 'A2'에서 'A1'로 올린 지 2년 4개월만에 또 등급을 올린 것이다.

또 이번 상향은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으로 금전적 위미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A(싱글A)'에서 금전적 위미행 가능성을 배제한 'AA(더블A)'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광복 67주년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3주년 기념
창무극 백범김구
조국광복, 자주독립, 남북통일, 애국 애족 정신의 결정판
아직도 못 다이룬 임의 소원
2012. 8. 29/수/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
2012. 9. 5 /수/ 오후 3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2012. 9. 13/목/ 오후 6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
| 예술총감독 | 송순섭 | 공연단체 | 전라남도국립국악단
| 연출 | 강미진 | 상임지휘자 | 박승희
주최 |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 (사)남도문화예술진흥회
주관 |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 (재)전남문화예술재단
후원 | 국가보훈처,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협찬 | (재)서암문화재단, (재)유당문화재단
특별후원 | 광주일보사
문의 | 062)525-6665
무료입장